

# 梁啓超의 『西學書目表』 編纂考

Compilation Research of Liang Qi-chao's *Xixue shumu biao*

송 일 기 (Song, Il-Gie)\*

정 성 미 (Jeong, Seongmi)\*\*

## ◁ 목 차 ▷

- |          |            |
|----------|------------|
| 1. 緒言    | 3. 板本 및 體制 |
| 2. 編纂背景  | 3.1 現傳板本   |
| 2.1 編者生涯 | 3.2 編纂體制   |
| 2.2 編纂動機 | 4. 結言      |
|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논문은 중국의 양계초가 간행한 근대 서학 목록서 『西學書目表』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이 책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계초는 청나라 말기에 개혁운동을 한 인물로서, 중국인 계몽을 위해 1896년 『西學書目表』를 발표하였다. 서문에서 편찬 배경과 서목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였고, 서목에 수록된 도서는 대체로 근대과학 내용을 담은 것이다. 본편 3권은 서학서를 학·정·잡 3개 대분류와 28개의 소분류로 분류하였고, 3분류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종합성 도서를 나타낸 것이다. 부권은 통상 이전 번역본과 미인쇄 번역본, 중국인 쓴 서양서가 수록되었다. 서목은 본편의 경우 서명, 찬역인, 각인처, 본수, 가치, 식어, 권식 등의 기록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기록 사항은 특징을 가지는데, 원저자가 아닌 번역자를 기록하여 수록된 책이 번역본임을 강조하였고, 서양의 도서 형태에 따라 책 수를 세는 단위로 ‘권’이 아닌 ‘본’으로 하였다. 또 책에 대한 값을 써서 소장이 아닌 구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어와 권식을 기록하여 필독 도서를 표시하였다.

要語: 서학서목표, 양계초, 서학서 목록, 번역서, 도서분류법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석사(tkt134@naver.com)

접수일: 2014년 3월 4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China's modern book-list *Xixueshumubiao*(西學書目表) about western learning which is written by Liang Qi-chao from bibliographic viewpoint and found out following facts. This book is made with four chapters which contains introduction.

Liang Qi-chao was leading enlightened campaign in the last days of Qing Dynasty, published *Xixueshumubiao* at 1896. He write about historic background and his book classification system in introduction. *Xixueshumubiao* is mainly about modern science book lists. The Main Chapter is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學(Natural Science) · 政(Social Science) · 雜(General Knowledge), and organized by 28 subjects. Western learning translation of before commercial treaty, not printed translation and compiled by the Chinese about Western, are listed in supplement.

the main chapter is cataloged by title, author, imprint, number of copy, price, notes, circle symbol. This items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 such as indicating translations that recording translators and recording not volume number but copy number because of a book bound in Western style. It is marked price of the book for focusing on the purchase, and has notes and circle symbol for marking must-have books.

Key words: *Xixueshumubiao*, Liang Qi-chao, Western learning Bibliography, Translation bibliography, Classification System

## 1. 緒 言

아편전쟁을 전후로 중국은 서양 학문을 수용하여 학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전통적 사부분류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목록학 분야에도 서구의 이론이 도입되었다. 그 당시 변법운동을 주도한 梁啓超는 서양의 기술 도입은 물론,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받아들여 전통체제 자체를 변혁하고자 노력한 대표적 사상가이자 목록학자이다. 그는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의 학술서적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중요한 책들을 열독하여 세계 각국의 문명과 국경 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학서를 번역한 서적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1896년 時務報에 편자가 선정한 서학서의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西學書目表』이다.

이 서목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서 분류법인 사분법에서 벗어나 서학서의 분류에 적합한 새로운 독자적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이 서목이 편찬되었던 당시는 신구가 교체하는 과도기로 중국목록학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서구 목록이론이 점차 수용되었던 시기였다. 이 서목은 중국의 계몽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과, 전통적인 도서 분류법인 四部에서 근대적 분류방법을 수용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특히 양계초는 고전과 서학서에 관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해제와 독법을 제시한 학자로 유명하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양계초의 생애나 사상에 관한 연구는 보이고 있으나, 정작 이 서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이에 관한 수편의 논고가 발표되었으나, 서목에 수록된 서학서의 수량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그것의 형태적 분석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계초의 『서학서목표』를 대상으로 형태 및 내용 서지학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서학서의 특성과 목록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서목을 편찬한 양계초의 생애와 저술활동, 그리고 편찬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편찬한 <서학서목표>를 대상으로 형태 및 내용 서지학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존판본의 특징과 편찬체제의 목록학적 의미 등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 2. 編纂背景

### 2.1 編者生涯

편찬자 梁啓超는 1873년에 태어나 1929년 사망할 때까지 국민 계몽에 헌신하면서 많은 학술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1873년(同治 12) 음력 정월 26일 廣東省 新會縣 熊子島 茶坑鄉에서 아버지 梁寶瑛과 어머니 趙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字는 卓如, 號는 任公이다. 조부 梁維淸과 어머니 趙氏로부터 <四書五經>을 익혀 6세에 완독하였으며, 부친으로부터 『中國略史』를 수학하는 등 일찍이 가정에서 중국의 전통학문을 공부하였다. 1883년 張之洞의 獻語와 『書目問答』을 읽고 학문에 눈을 뜨게 되어, 12세 때 秀才에 及第하고 『史記』와 『漢書』 등을 완독하였으며, 박사 弟子員이 되었다. 16세 때에는 廣州의 學海堂에 들어가 經學, 訓詁學, 文字學을 익혔고, 張之洞의 문하생이 되어 이후에 그를 유신파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학문을 학습하고 고증학의 기본을 닦았다는 사실이다.

1890년 이후 『瀛環志略』을 읽고 서양에 관해 깊게 감명 받아 學海堂을 자퇴한 후 康有爲를 만나 구학을 버리고, 萬木草堂에 들어가 신학을 배울 수 있었다. 1895년 康有爲가 펴낸 『萬國公報』(후에 『中外紀聞』으로 개칭함)의 주필을 맡고 強學會를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변법유신운동의 길로 들어선다. 그는 1895년 北京에서 청일전쟁의 패전을 듣고 康有爲와 함께 변법운동을 일으켰다. 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사상적 계몽을 위한 학술과 사상을 중시하여 『時務報』를 창간하는 등의 학술 활동을 통해 변법사상을 전파하였다. 『時務報』는 서양 소식을 번역하는 동시에 梁啓超의 학술 사상이 담긴 60여 편의 글이 실렸는데, 대표적으로 『變法通儀』와 『西學書目表』 등이 있다. 이후 1897년 마카오에서 『知新報』를 창간하였고 장사 시무학당의 총 교습을 맡아 湖南에서 변법사상을 선전하였다. 1898년에는 康有爲를 도와 保國會를 창립하고 ‘백일유신’을 시작하게 되는데, 4월 23일에 光緒帝는 康有爲

의 주장을 수용하여 개혁을 지향하는 특별조치를 내리면서 소위 ‘戊戌變法’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개혁이 과격하게 진행되자 西太后는 수구파를 내세워 변법반대의 쿠데타를 추진하였고, 이를 피해 康有爲와 일본으로 피신하면서 변법자강운동은 ‘백일천하’로 실패하였다.

이후 망명의 길을 걷게 된 그는 1898년대 이후부터 중국 근대 언론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잡지들을 창간하여 여러 사상적 글들을 발표하는 한편, 정치단체를 조직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898년 12월 『清議報』를 창간하여 외국 문명이나 외국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번역 글을 상당수 실었고, 『清議報』가 정간되자 1902년 일본 橫濱에서 『新民叢報』를 창간하고 중국의 유신에는 중국민의 유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창간호에 『新民說』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03년 2월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고 『新大陸遊記』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1904년 홍콩에서 상하이로 잠행하여 時報를 창간하고, 『子墨子學說』 및 『墨子之論理學』을 발표하였다. 1906년에는 『開明專制論』을 지어 군주입헌을 주장하며 혁명당과 대립하여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신해혁명이 성공하여 귀국하기 전까지 언론사업과 정치활동 및 저술에 종사했다.

신해혁명이 성공한 뒤 귀국하여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벌이며 여러 관직에 임명되고, 袁世凱와 張勳의 복벽에 반대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망명한지 14년만인 1912년에 귀국하여 공화당 영수가 된 그는 天津에서 『庸言報』를 창간하였다. 귀국한 이듬해인 1913년 2월 공화당에 입당하여 5월에는 진보당 이사에 당선되었고, 9월에 옹희령 내각의 사법총장에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14년에는 화폐제조국 총재가 되었고, 1915년에는 월간 『大中華』를 창간하고 화폐제조국 총재를 사임하였으며, 袁世凱를 축출하기 위해 조직된 軍務院이 건립되자 정무위원장 겸 撫軍이 되어 『異哉所謂國體問題者』를 발표하고 袁世凱와 완전히 결별하였다. 1917년에는 張勳의 복벽에 반대하여 段祺瑞가 조직한 ‘討逆軍’에 참가하고 段祺瑞 내각의 재정총장에 취임하였다. 張勳의 복벽에 康有爲의 공이 가장 컸으므로 이로부터 그와 철저히 결별하게 된다. 이 해 11월에는

정치적인 지위에서 모두 사직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1918년 『中國通史』를 쓰고 胡適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1919년에는 국민외교협회에서 협회 대표 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였고,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와 『歐遊心影錄』을 지었다. 이후에는 여러 곳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여 주로 강연을 통한 학술 활동이 많았다. 1920년에는 『中國佛敎史』와 『清代學術概論』을 저술하고, 1921년에는 『墨經校釋』과 『墨子學案』을 지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大乘起信論考證』과 『大乘起信論考』를 쓰고 南開 대학에서 강연한 “중국문화사”를 『中國歷史研究法』으로 간행하였다. 1925년에는 淸華 학교 국학연구원 導師에 취임하고 경사 도서관 관장을 겸임하였으며, 이듬해에는 『先秦學術年表』를 저술하고 『王陽明知行合一之敎』를 지었다. 본거지를 1923년 北京으로 옮긴 후, 1925년-1927년 동안 경사도서관의 관장을 역임하였다. 1925년 중화도서관협회가 설립되었고, 초대 동사부 부장으로 천거되었다. 1927년에는 『中國文化史』, 『儒家哲學』, 『古書의 眞僞 및 그 年代』 등을 저술하였다. 이듬해 병세가 악화되어 절필하고 1929년 1월 19일 北京 협화의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는 중국 청대의 말기를 살아오면서 국민적 학자로 추앙받았던 인물로 다양한 분야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주요 저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계초의 주요 저술

연도	저술	출판사	연도	저술	출판사
1896년	時務報 장간 變法通議 西書提要, 西學書目表	時務報館	1918년	中國通史	미상
1898년	淸議報 장간, 戊戌政變記	淸議報社	1919년	歐遊心影錄	미상
	萬木草堂書藏徵捐圖書啓	미상	1920년	清代學術概論	商務印書館

연도	저술	출판사	연도	저술	출판사
1899년	自由書	清議報社	1921년	墨經校釋	商務印書館
1902년	新民叢報  창간, 新民說	新民叢報社		墨子學案	商務印書館
	飲冰室文集	廣智書局	1922년	大乘起信論考, 大乘起信論考證	商務印書館
1903년	中西偉人傳	橫濱新民社		中國歷史研究法	商務印書館
1904년	新大陸遊記	新民叢報社	1923년	國學入門書要目及其 讀法	清華周刊
	子墨子學說, 墨子之論理學	新民叢報社		1924년	中國近三百年學術史
1905년	分類精校飲冰室文集	廣智書局	1925년	新式標點飲冰室全集	上海大通書局
1911년	飲冰室政治論集	廣智書局		要籍解題及其讀法	清華周刊叢書社
1914년	梁任公文集	上海共和編譯局	1926년	先秦學術年表	미상
	梁任公文集彙編	上海交通圖書館		中國學術思想變遷史	群衆圖書公司
1915년	梁任公文鈔	上海進步書局	1927년	中國圖書大辭典	미상
	大中華  창간	中華書局		古書真偽及其年代	미상

그는 학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학술적 사상을 전파하였고, 이용자의 독서 지도를 위해 국학을 포함한 여러 학술 분야의 목록을 편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 수집 원칙을 세워 중국의 목록학 분야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 2.2 編纂動機

아편전쟁(1840-1842)에 패배한 청나라는 1842년 南京條約을 체결한 후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치욕스런 희생양이 되었다. 조약체결의 결과로 중국의 5대 항구인 廣州·廈門·福州·寧波·上海의 개항, 홍콩의 양도, 외국 영사주재의 승인, 배상금의 지불, 從價 5%의 협정관세율의 설정 등으로 인해 종래의 쇄국정책은 파탄을 맞이하였다. 이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국가의 부강을 추구하기 위해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정치적·학술적 분위기에도 근대화의 움직임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무렵 중국은 서양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부터 이미 전통 목록학에서 서구적 새로운 목록 이론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姚振宗(1842-1906)은 목록이 정보전달의 참고도구로서 가치가 있음을 의식하고, 목록학이 독립적인 학문분야라는 인식을 밝히는 등 이후 연구자들이 목록학이론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초를 닦았다. 孫詒讓(1848-1908)은 『溫州經籍志』를 편찬할 때 모든 자료 앞에 서명을 맨 위에 두어 목록의 검색기능을 높였다. 繆荃孫(1884-1919)은 목록학적 관점에서 책의 실질적 내용인 ‘정신’과 외형적 특징인 ‘형식’으로 서적을 구분하는 방법과 서목이 단행본 서적을 검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張之洞(1837-1909)은 독서와 목록과의 관계에 대해 목록서는 독서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門徑說을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서학과 유신변법 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康有爲와 梁啓超 두 사람은 각각 『日本書目志』와 『西學書目表』라는 번역서 목록을 편찬함으로써 서학의 효과를 정리하고 선전하기를 희망했다. 양계초는 일찍이 서학 목록서인 新學을 익히는 중국인이 필요로 하는 西學書 推薦書를 제공하기 위해 1896년 『西書提要』를 편찬했으나, 여기에 『醫學』과 『兵政』 부분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의 제자 梁作霖과 黃公祐, 동생 梁啓勳 등이 그 책을 가져와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서양서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독서 방법 및 우선순위를 물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西學書에 대해 조사하여 目錄으로 작성한 4권의 『目表』와 별도의 『독서지도서』 1권을 그들에게 보내주면서, “성인의 도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孔子는 일찍이 周天자의 성에 갔을 때 120개 국가의 귀중한 서적을 구하였고, 우리 청나라의 위대한 조상 康熙帝는 일찍이 『禦撰數理精蘊』의 편찬을 명령하고 서양 산학방법을 권수에 실었다. 乾隆帝가 편찬교정을 지시한 『四庫全書總目』에는 이미 번역이 완료된 서양서적 전부가 수록되어 있다. 비록 선대의 성인과 후대의 성인이 구체적으로 행한 바는 다르지만 그 도리는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업은 너무도 광대하고 웅장하여 그야말로 더 이상 추가할 수도 없다.”<sup>1)</sup>고 말했다.

이미 대외적으로 海禁이 해제된 이후 曾國藩이 강남에서 재직할 당시 江南製造總局을 설립하고 서양서적의 번역을 가장 우선적인 임무로 두기 시작했고, 몇 해 지나지 않아 100종 이상이 번역되었다. 이와 동시에 北京 同文館과 중국에 설립된 교회에 있던 서양인의 참여로 서학을 배움에 있어 입을 가치가 있는 번역서가 이미 300여종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梁啓超가 서학 번역서를 서학 학습의 수단으로 제시할 근간이 마련된 상태였다.

梁啓超가 편찬한 『西學書目表』의 서례를 살펴보면, 편찬 동기와 이론적 근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첫째, 미개와 문명을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았다. 당시의 형세를 禽獸와 인간과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禽獸는 아는 것이 단순하여 호랑이나 치타가 아무리 사납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인간이 그들을 잡을 수 있고, 원시의 야만인 역시 아는 바가 단순하기 때문에 변방의 苗族, 黎族, 番族, 回族 등 소수민족이 비록 흉악할지라도 중국 문명인들이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sup>2)</sup>고 하였다. 서양의 聲學, 光學, 化學, 電學, 農學, 鑛學, 工學, 商學 등 모든 근대적 학문과 중국 전통의 문헌고증학은 강자와 약자, 문명과 미개를 대변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둘째, 강자(문명인)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서학 학습을 내세웠다. 중국 내에서 번역된 여러 西洋書를 제시하면서 이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중요한 책들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면 세계 각국의 역사 변천과 각국 국경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추천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놓았다. 그리고 기존의 양무운동에서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양의 무기 기술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서양 각국의 法規, 教育, 政策, 條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야말로 富國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1)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 (時務報館, 1896), 張1a. “聖人之道孔子適周求得百二十國寶書聖祖仁皇帝御纂數理精蘊潤色西算弁諸卷首高宗純皇帝欽定四庫總目凡譯出西書悉予審錄先聖後聖其事不同其揆若一嗚呼溥博宏遠口以加矣.”

2)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 (時務報館, 1896), 張1b. “凡含生之倫愈愚獷者其腦氣筋愈粗其所知之事愈簡愈文明者其腦氣筋愈細其所知之事愈繁禽獸所知最簡故虎豹雖猛人能檻之野人所知亦簡故苗黎番回雖悍人能制之.”

보았다.

셋째, 보다 명확한 지식을 담은 최신의 서학 번역서를 익혀 이전에 紀昀(1724-1805)이 편찬한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職方外紀』, 『坤輿圖說』 등의 서적이 중국 전국시대의 음양가 鄒衍의 학설을 모방한 것이며 그 내용이 과장과 환상으로 가득 차있어 연구할 가치가 없고, 阮元(1764-1849)이 쓴 『疇人傳』에서는 덴마크 천문학자 Tycho Brahe(1546-1601)의 천문학이론이 천공과 지구의 공전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사상을 널리 날렸고 이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므로 신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에 관하여 1896년에 이르러 서방에서는 오대주 및 세계 각국의 명칭과 태양과 지구의 위치 및 운동관계에 대해 오척동자도 모두 이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紀昀, 阮元과 같은 중국의 학식이 풍부한 학자가 습득한 지식은 오히려 서양 각국의 소학생 보다 못하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이것은 중국의 약세 원인을 서학의 기초 지식조차 습득하지 못한 중국인의 無知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빗대어 서양 학문의 受學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목록학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국민의 계몽을 위해서는 西學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가 서학을 선전하는 것은 목록학을 연구하는 목적이었다. 서양의 선진적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학서적의 번역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목록을 편찬하고 목록을 홍보하는 것에도 힘썼다. 또 이와 같은 서학 서적을 학생들이 보다 신속히 알 수 있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본말을 갖추어 연구 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념으로 서학 해제 도서목록인 『西書提要』를 초기 편찬하였고, 계속해서 『西學書目表』, 『東籍月旦』을 편찬하였다. 이 중 『西學書目表』는 가장 저명하고 그의 목록학 사상을 대표하는 목록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자국민의 수준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여 독서를 통한 기초이론 습득을

3)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1b. “紀文達之撰提要謂職方外紀坤輿圖說等書爲依仿中國鄒衍之說夸飾變幻不可究詰阮文達之作疇人傳謂第谷天學上下易位動靜倒置離經畔道不可爲訓今夫五洲萬國之名太陽地球之位西人五尺童子皆能言之若兩公固近今之通人也而其智反出西人學童之下.”

유도하였다. 여기에서 추천되고 있는 서적들은 최근에 번역된 서적이 아닌 것이 많아 온전한 신학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현대도 과학과 기술은 거의 매일 새로이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일단 개발되면 예전의 것은 바로 도태되는 구학문이 된다. 양계초가 수록한 번역서는 대부분 20년 전에 간행된 것으로 서양인에게는 이미 구학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최신성을 갖추지 못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소위 학문과 지위를 갖췄다는 ‘大學士’나 ‘士大夫’들은 신지식에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았다.<sup>4)</sup> 그것은 중국인이 서양인 보다 학습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대 학문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중국 지식인들이 기초과학이론을 먼저 익히게 하고, 차차 깊이 있게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양계초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시대적 변화와 이전시기의 목록학자들이 그보다 앞서 서양학문이나 서구의 목록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근대적 목록사상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선진의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라 양계초는 적극적으로 서구의 목록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의 도서 분류 체계는 근대적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 3. 板本 및 體制

#### 3.1 現傳板本

양계초가 편찬한 『西學書目表』는 1896년에 상해 時務報館에서 간행되었는데, 西學에 관한 분류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근대적 목록서로 평가되

4)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2b. “新愈變愈上新者一出舊者盡廢今之各書譯成率在二十年前彼人視之已爲陳言矣而以語吾之所謂學士大夫者方且詫爲未見或乃瞠目變色如不欲信嗚呼豈人之度量相越遠邪抑導之未得其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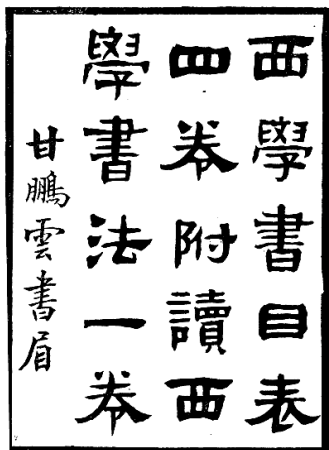
고 있다. 이 책은 光緒 22년(1896) 8월에 유신파에 의해 창간된 『時務報』에 처음 발표된 이후 質學會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質學叢書初集』은 1897년 武昌에 소재한 質學會에서 발행한 총서로서 전체 4函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수는 38冊이며 모두 80권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西學書目表』은 제 2函 9-10冊에 실려 있다.<sup>5)</sup>

質學會本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형태서지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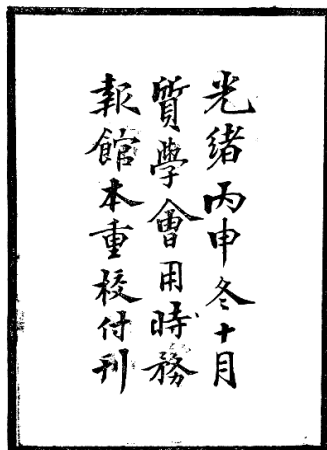
먼저 권수에 『序例』를 두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편성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本編』에는 서학 서적을 上·中·下 3권에 수록하고 끝부분에 附卷 1권을 별도로 두었으며 讀西學書法 1권을 수록하여 전체적으로 서목 4권과 부록 1권으로 편성하였다.

표지(<그림 1> 참조)에는 “西學書目表四卷附讀西學書法一卷甘鵬雲書眉”라는 표제 정보가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서적이 『西學書目表』 4권과 『讀西學書法』 1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甘鵬雲書眉”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표제를 甘鵬雲(1862-1941)이 썼던 것을 알 수 있다. 甘鵬雲은 湖北 潛江 출신으로 중국의 저명한 근대 장서가이자 학자이다. 1888년 거처를 武昌으로 옮긴 후 경심서원, 양호양서원에 들어가 11년간 연구하면서 『西漢說易徵存』 1권과 『公羊學述』 2권, 『菱湖日記』 6권을 편찬하였다. 그는 1897년 王葆心, 趙伯威 등과 함께 質學會를 설립했고, 1898년 양호서원을 떠나 북경과 上海를 떠돌다 후에 荊門·沙市로 돌아가 강의를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세무관감독을 지냈고, 1932년 湖北省 통지관에 부주임으로 임명되었고, 『方志商』을 완성했으며, 『湖北文徵』를 편찬했다. 甘鵬雲이 質學會를 설립하는 것에 관여하였고 質學叢書는 質學會에서 집록하였기 때문에 質學叢書에 실린 目表의 제목을 그가 직접 제호한 것이다.

5) 質學會, 『質學叢書』總目(質學會, 1897), 張 1a. 참조



<그림 1> 『西學書目表』 表紙



<그림 2> 『西學書目表』 標題紙

표제지에는 <그림 2>와 같은 출판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光緒丙申冬十月 … 重校付刊”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간행 시기에 관한 기록으로 “光緒丙申”년 10월 겨울에 다시 교정하여 간행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質學會用時務報館本”은 간행 기관을 표시한 것이다.

質學會는 미술변법운동기간의 유신파 단체로 광서 23년(1897)武昌에서 王葆心, 趙伯威, 甘鵬雲 등이 설립하였다.<sup>6)</sup> 본 단체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인제가 부족하면 변화할 수 없고, 배우지 않으면 인제가 될 수 없고, 논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 고로, 분과를 나누어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따라서 經學, 史學, 法律學, 方言學, 算學, 圖學, 天文學, 地學, 農學, 礦學, 工學, 商學, 兵學, 格致學 등 14개 부문으로 과를 나누었으며, 앞의 6개 부문은 병행하여 학습하고, 뒤의 8개 부문은 전문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다. 또한, 광범위하게 도서를 수집하고 학보로 편집 출판하였으며 『質學叢書』를 집록하였다. 따라서 권두에 쓰인 기록은 “光緒丙申(1896)”년 10월 겨울에 時務報館本 『西學書目表』를 質學會에서 다시 교정하여 간행하였

6) 劉艷華, “甘鵬雲學術成京與學術思想考述,” (碩士學位論文, 華中師範大學, 2011), 15.

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목의 권수는 서문에 해당하는 序例와 總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序例에는 책의 저작 동기와 목적, 책의 핵심적 내용을 썼고, 總目에서 3개의 大類와 28개의 小類, 附卷에 수록된 서학서에 관한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총목 아래에는 “黃岡陶舫溪承刊”이라는 기록이 있어 黃岡 출신의 陶舫溪이라는 사람이 판각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는 권두와 권미에 제명과 장서인, 간행기록 등에 관해 표시되어 있다.

제명의 경우 권두와 권미에 모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上卷의 경우 권두에는 “西學書目表上”이라고 되어 있고 권미에는 “西學書目表上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上卷의 권두에는 제명 이외에도 “質學叢書用上海時務報館本 新會梁啓超撰”라고 하여 간행 기관과 장소 및 저자를 표시하였고, 中·下·附卷의 권두에는 “新會梁啓超撰”라고 하여 저자가 新會 출신이며 梁啓超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권미에는 4권 모두 제명과 함께 각 권별로 교정한 자와 이후 다시 교정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 사항에 따르면 上卷은 興山 출신의 余光輔가 初校를 맡고 歸州 출신 孫萃斌이 覆校를 맡았다. 中·下卷은 江夏 출신의 鄭壽黎가 初校를 맡고 宋滋 출신 雷以成이 覆校를 맡았다. 附卷은 東湖의 黃穀元이 初校를 맡고 江夏 출신 劉問堯가 覆校를 맡았다. 권두에는 「哈佛大學漢和圖書館珍藏印」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중국본도서관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을 살펴보면 행관은 序例와 附卷은 반엽 11행 23자이고, 본편 上·中·下卷은 5단으로 구성된 표이다. 판본은 목판 인쇄본이고 장정은 선장 형태이다.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엽을 기준으로 반곽은 16.5×12cm이다. 계선을 사용하였고 고 판심부에 흑어미가 있다. 다음은 위의 판본사항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質學會本の 서지사항

서명	西學書目表	책수	4函 38冊
저자	梁啓超	판종	목판본
연대	1897년(光緒 23)	크기	16.5×12

또 다른 판본으로는 1896년에 발행된 時務報館本이 있다. 序例가 빠져 있고 西學書目表 3권, 附卷 1권, 讀西學書法 1권이 수록되어 있으며 時務報館에서 관각하여 발행하였다. 竹紙를 사용하였으며 1冊으로 구성되었다. 판식을 살펴보면 行관은 附卷과 讀西學書法은 반엽 13행 30자이고, 본편 上·中·下卷은 5단으로 구성된 표이다. 변란은 상하좌우 사주단변이고 반엽을 기준으로 반곽은 16.9×11.1이며 계선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위의 판본사항을 표로 작성 한 것이다.

<표 3> 時務報館本의 서지사항

서명	西學書目表	책수	1冊
저자	梁啓超	판종	석판본
연대	1896년(光緒 22)	크기	16.9×11.1

판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時務報館本(1896)의 경우 序例가 빠져 있지만 『質學叢書初集』(1897)에 수록된 것은 序例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버드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質學叢書本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 3.2 編纂體制

### 3.2.1 序例

권수에 있는 『序例』에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하는 당위성, 저서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추천하는 도서의 구성 내용과 구성 이유 등을 실어 놓고 있다. 이 외에도 분류기준과 분류 방법, 7개 항목으로 분류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편찬 배경과 동기는 2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본 절에서는 편찬 목적과 이론적 근거와 분류 방식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양계초는 서양의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고 유신운동을 추진하며 국민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국가가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면 많은 서학번역서를 근본으로 삼고, 학생 스스로가 자립하고자 하면 서학서를 읽기에 더 힘써야 한다”<sup>7)</sup>라고 하였다.

그는 서학서의 번역과 학습이 국가를 문명국으로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 구절은 외국의 신학문 도서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스스로 강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서학서를 분류하였고 분류한 기준과 내용, 근거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本編의 번역서들을 총 세 분류로 나누었는데, (1) 자연과학서적(學), (2) 사회과학서적(政), (3) 종합성 도서(雜)이고 이를 다시 소분류로 나누었다. 서양의 지식 이 자연과학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學을 앞에 두고 政을 뒤에 둔다고 하였다. 또 3개 大類는 다시 학문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28개의 小類로 나뉘었다. 이에 양계초는 이러한 분류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첫째, 서양의 각종 학술서적은 분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모든 정치는 학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학문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제도는 과학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와 과학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만약 과학의 각 분야를 전면적으로 학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과학 분야에도 정통할 수 없고,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종류의 제도도 실행할 수 없으므로 어떤 분야의 과학과 어떤 종류의 제도의 소분류 역시 분할하기 어렵다. 나는 다만 공부하는 사람이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강제로 이와 같이 구분해 놓은 것이다.

둘째, 동시에 두 가지 분야에 속할 수 있는 서적들은 좀 더 편중된 쪽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行軍測繪』는 兵政類가 아닌 圖學에, 『御風要術』은 天學가 아닌 船政에, 『化學衛生論』은 化學類가 아닌 醫學類에 분류한 것 모두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한 『電氣鍍金』, 『電氣鍍銀(전기니켈도금)』 등의 서적은 본래 電學에 분류할 수 있고, 『脫影奇觀』, 『色相留眞』, 『照像略法』 등 서적은 光學類에 분류할 수 있으며, 『汽機發軔』, 『汽機必以』, 『汽機新制』 등 서적은

7)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 2a. “國家欲自強以多譯西書爲本 學子欲自立以多讀西書爲功.”

汽學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 서적들 모두 현재 工藝類에 분류되어있다. 이는 제조공예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모든 책들은 그 근본이 백과지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각 서적을 추출하여 일일이 해당과에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金石識別』은 光學類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地學類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양쪽 다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차라리 化學類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나로 하여금 상당히 머리를 쓰고 고민하게 했지만 결국엔 牽強附會라는 비웃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七略』와 『七錄』, 심지어 『四庫全書總目』 같은 역사적으로 저명한 목록 학서적조차도 그 도서종류의 구분·종합 및 분류된 서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일부 학문이 있는 자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논쟁하고 있지만 가장 완벽한 분류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 문제의 어려움도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리라. 국내의 학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수정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쁘겠는가.<sup>8)</sup>

셋째, 이미 번역된 서적은 대체로 정부의 각 譯書局 조직에서 번역한 것이며, 兵政이 가장 많다. 이는 예전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국의 전통 학문이 서양 학문보다 우월하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병기 제조 기술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서양인이 중국에 세운 교회에서 번역한 서적은 醫學類가 가장 많다. 이는 선교사 대부분이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江南製造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工藝이며, 工藝는 또한 각종 과학지식을 근본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 과학 서적이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구성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

8)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時務報館, 1896), 張3a-3b. “西學各書分類最難凡一切政皆出於學則政與學不能分非通羣學不能成一學非合庶政不能舉一政則某學某政之各門不能分今取便學者強爲區別其有一書可歸兩類者則因其所重如行軍測繪不入兵政而入圖學御風要術不入天學而入船政化學衛生論不入化學而入醫學是也又如電氣鍍金電氣鍍銀等書原可以入電學脫影奇觀色相畱眞照像略法等書原可以入光學汽機發軔汽機必以汽機新制等書原可以入汽學今皆以入工藝者因工藝之書無不推本於格致不能盡取而各還其類也又如金石識別似宜歸礦學類又似宜歸地學類而皆有不安故歸之化學海道圖說似宜歸地學類又似宜歸海軍類而皆有不安故歸之船政此等門目亦頗費參量然究不能免牽強之訛願自七略七錄以至四庫總目其門類之分合歸部之異同通人猶或訾之聚訟至今未有善法此事之難久矣海內君子惠而教之爲幸何如.”

이다. 서양 사회 과학 서적은 번역된 것이 극소하여 정치교육이든 아니면 農, 礦, 工, 商 등의 부문이든 책 전체가 번역된 것은 거의 없지만 이를 하나의 단독 분야로 나누었다. 이것은 본래 이러한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사전에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늘렸기 때문이다.<sup>9)</sup>

또한 本編은 총 7개의 기록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데, 書名, 撰譯人, 刻印處, 價置, 本數, 識語, 圈識이 그것이다. 예로부터 장서가들은 소위 말하는 선본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옛날 도서목록은 한 권의 서적에 대해 어느 왕조, 어느 장소에서 판각, 인쇄 되었는지를 논증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양계초는 독자가 골라서 구독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면서 그에 관한 이유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

첫째, 本編의 서학서는 원저자명이 아닌 번역자명이 기록되어 있다. 도서명 아래 저술자의 성명이 아닌 번역인의 성명만 기재한 이유에 관해, 目表에 수록된 서학서는 번역이 중점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서적들을 번역할 때 대부분 한 사람은 통역하고 한 사람은 글로 기록한다. 하지만 번역이 완료된 책에 두 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명 하단에는 대부분 한 사람의 성명만 쓰여 있는 것이다.

둘째, 옛날 고서의 장정형식은 권자였기 때문에 후대의 장정형식은 비록 선장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卷’이라는 명칭을 따르고 있으며, 전통서적의 분책은 모두 ‘卷’으로 수를 세었다. 그러나 梁啓超는 本數로 표기하고 卷數로 표기하지 않았다.

셋째, 이전의 목록학자는 소장이 주요 목적이었으므로 도서 목록에 가격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본 目表는 구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영 서점의 관례에 따라 판매가를 밝히고 있다. 江南製造總局, 京師同文館, 天津水師學堂에

9)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3b. “已譯諸書中國官局所譯者兵政類爲最多蓋昔人之論以爲中國一切皆勝西人所不如者兵而已西人教會所譯者醫學類爲多由教士多業醫也製造局首重工藝而工藝必本格致故格致諸書雖非大備而崖略可見惟西政各籍譯者寥寥官制學制農政諸門竟無完帙今猶列爲一門者以本原所在不可不講懸其目以俟他日之增益云爾.”

서 번역 및 인쇄한 도서는 전부 원래 가격표를 근거로 표기한 것이며, 각각본의 경우 格致書室에서 제공한 가격표를 근거로 표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몇냥 몇전’이라고 주석이 달린 것은 은자로 계산한 것이고, ‘몇천 몇백’이라는 주석이 달린 것은 동전으로 계산한 것이며, ‘몇원 몇각’이라는 주석이 달린 것은 은화로 계산한 것이다.

넷째, 표의 제일 아래 줄에 쓴 ‘識語’와 표의 제일 윗부분에 첨가한 ‘圈識’(동그라미 표시)는 학자들의 독서 편의를 위해 첨가한 것으로, 도움말이 전부 적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계 학자들이 이를 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sup>10)</sup>

그리고 附卷의 경우 저자와 간행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주제별로 小類를 구성하였다. 기록 유형 또한 本編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의 이유와 수록된 서적에 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첫째, 附卷에서 열거한 海禁 해제 및 通商 이전에 번역된 서양서적은 대부분 역법계산과 어록 두 가지 종류이다. 이에 어록류의 서적은 골라내어 기재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도서 역시 더 이상 종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저자에 따라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둘째, 附卷에 열거한 중국인이 쓴 서양을 소개하는 서적들은 수집한 것이 특히나 적다. 아마도 중국학자들이 이러한 책을 쓰긴 했지만 인쇄하지 않아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쇄가 되었으나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서적들은 이미 그 내용이 알파하고 단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 서점에서 유통되는 판본은 예전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해온 케케묵은 내용이거나, 심지어

10) 梁啓超, 『西學書目表』 序例 (時務報館, 1896), 張4a-5a. “書目例標撰人名氏今標撰人不標撰人者所重在譯也譯書率皆一人口授一人筆述今諸書多有只標一人者原本不兩標故仍用之名從主人也.古書用卷子本故標卷數後世裝潢既異而猶襲其名甚無謂也故今概標本數不標卷數.目錄家皆不著價值蓋所重在收藏無須乎此今取便購讀故從各省官書局之例詳列價值其標若干兩若干錢者銀價也其標若干千若干百者制錢價也其標若干元若干角者洋銀價也製造局同文館天津學堂之書概據原單其家刻本及西士自印本據格致書室單製造局書有原價減價重減價格致書室單所列製造局書略依其減價之值今所列者乃其重減價之值減價之視重減價約如十與八之比例.表下加識語表上加圈識皆爲學者購讀而設體例不能雅馴所不計也惜所識太略又學識淺陋未必得當耳世之君子尙救正之.”

원서를 몇 권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있다. 이는 악덕상인들이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학자는 그 책들을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러한 서적은 일체 도서목록에 넣지 않았으며, 도서수집 원칙이 매우 엄격하며 漏하지 않음을 뜻한다.

셋째, 중국인이 쓴 서양을 소개하는 책은 기행문 종류가 가장 많고, 기타 서적은 분류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나는 고서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화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에 의거하여 ‘기행문류’와 ‘비기행문류’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넷째,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번역한 책을 마치 자신이 쓴 책으로 하였고, 심지어 ‘번역’이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밝혀내어 주를 달아 번역서표 안에 넣었다.<sup>11)</sup>

마지막으로 예전에 학생들이 일부 중요 서적의 장단점과 독서 선후에 관해 질문한 것을 대답한 내용을 “讀書法”으로 편집하여 표의 마지막에 附錄 형식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 『序例』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 梁啓超는 서양의 근대 지식을 학습하여 계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목록을 편찬함에 있어 학문의 카테고리별로 도서를 분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학기술을 비롯한 기초과학의 습득을 목적으로 西學書를 읽는 독자들을 위한 추천목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이 目錄書를 간행함으로써 중국인들이 효과적으로 서양의 근대지식을 익혀 스스로 계몽하기를 염원하였던 것이다.

11)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 5a-5b. “附卷所載通商以前之西書多言天算言教兩門今除言教之書不著錄外自餘諸書不能以類別故以著書人爲別一附卷所載中國人言西學之書搜羅殊隘其海內通人或有成書而未刻成而鄙人未及見者當復不少管窺蠡測知其孤陋若夫坊間通行之本有裨販前人割裂原籍以成書者乃市儈射利之所爲方聞之士所不屑道概不著錄以示謹嚴非罪漏也.中國人言西學之書以游記爲最多其餘各種亦不能以類別今用內典言人非人化學家言金非金之例區爲游記類非游記類二門.近人頗有以譯本之書而歸入自著書之中不標譯字者概爲疏通證明仍入諸譯書表中不援名從主人之例.一表後附札記數十則乃昔時答門人問之語略言各書之長短及某書宜先讀某書宜緩讀雖非詳盡初學觀之亦可以略識門徑故竊取過而存之之義附見末簡名曰讀書法博雅君子諒無哂之若其芻蕘之見則略具所著西書提要中此不能多及也.”

### 3.2.2 本編

本編에는 중국에서 서양에서 저술된 원서를 번역한 서적에 대해 근대식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수록해 놓았다. 그리고 이들 서학서는 卷上에 <西學諸書>, 卷中에 <西政諸書>, 卷下에 <雜類之書>라는 대 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배열하였다. 분류 항목은 모두 3개의 대분류와 2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 서양의 분류체계가 수용되지 않은 당시로는 비교적 과학적인 도서목록 분류체계이며 도서 분류의 이론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西學書目表』는 기본적으로 당시 출판되어 있던 서양 서적에 대한 중국어 번역을 망라하고 있다. 서양 학문은 종래의 전통적인 도서분류법에 따르면 대체로 史部 지리항목 아래 外紀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질 내용이었지만, 이미 서양의 학술 그 자체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梁啓超의 이러한 학문 분류도 역시 종래의 <四庫全書>의 분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류이며, 새로운 학문 수용에 따라 생겨난 학문의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서학이라는 대분류가 이미 서양의 자연과학이라는 의미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치·사회에 관한 내용들이 서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本編의 전체 분류인 자연과학, 사회과학, 종합성 도서는 學, 政, 雜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세부 분류되었다. 西學은 算學, 重學, 電學, 化學, 聲學, 光學, 汽學, 天學, 地學, 全體學, 動植物學, 醫學, 圖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西政은 史志, 官制, 學制, 法律, 農政, 礦政, 工政, 商政, 兵政, 船政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雜類는 游記, 報章, 格致總, 西人議論之書, 無可歸類之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상편의 西學類의 하위분류인 算學은 수학 관련 서적으로 『筆算數學』, 『三角數理』와 같은 수학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는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重學, 聲學, 光學, 汽學은 물리학 분야로서 『重學淺說』, 『光學』, 『熱學圖說』 등을 수록하였다. 電學은 전기·전자공학 분야로 『電學綱目』, 『電學圖說』이 있고, 化學에

는 『化學鑑原』, 『化學考質』 등이 수록되어 있다. 天學은 천문학으로 『談天』, 『測候叢談』와 같이 천체와 관련된 서적이 소개되어 있고, 圖學은 『繪地法原』과 같이 지리가 아닌 지도 제작과 측량에 관한 서적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천문학의 측지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地學은 지학에 속하고 『地學指略』과 같이 지구의 구조와 특성에 관련된 서적을 소개하고 있다. 全體學과 醫學은 의학 분야로 『全體通考』, 『西醫略論』 등 해부학과 서양 의학에 관한 서적이 있다. 動植物學은 식물학과 동물학을 포함하고 있고 『植物圖說』, 『百鳥圖說』 등이 있다. 梁啓超는 이 세목들을 모두 자연 과학인 “西學諸書” 아래에 두었다.

중편의 西政類의 하위분류인 史志는 역사 분야로 『歐洲史略』, 『大英國志』와 같이 서양의 역사를 소개하는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官制는 행정학으로 『德國議院章程』이 있고, 學制는 교육학으로 『西學課程彙編』, 『肄業要覽』 등 교수 지도법에 관해 수록하였으며, 法律은 『萬國公法』, 『各國交涉公法論』과 같이 각국의 법과 국제법에 관한 서적이 있다. 農政은 농업·농학 분야로 『蠶務圖說』이나 『西國養蜂法』과 같이 농사에 관해 수록하였고, 礦政은 광물학으로서 『寶藏興焉』, 『開煤要法』은 석탄과 같은 광물 등을 소개하는 서적이 있다. 工政은 공학·공학 일반에 관한 것으로 『汽機發軔』, 『汽機新製』가 있으며, 商政은 경제학으로 『富國策』, 『富國良民策』 등이 있다. 兵政은 국방·군사학으로 『德國軍制述要』, 『戰法學』 등이 있으며, 조선항해에 대한 내용인 船政은 항만공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航海簡法』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세목들을 모두 사회 과학인 “西政諸書”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하편의 雜類의 하위분류인 遊記類는 서양의 각 국가를 탐험하고 기록한 여행 서적이며, 대표적으로 『黑蠻風土記』는 英國의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Livingstone과 Stanley의 아프리카 탐험을 수록한 *Exploations in Africa Livingstone, Stanley and othes*(L.D. Ingesoll編, Chicago, 1872)를 번역한 것이다. 報章類에서는 서양의 학문, 정치, 과학기술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을 소개하고 있다. 『西國近事彙編』(1873-1900)은 兩廡派가 창간한 유일한 중문 기간지로서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군사, 법률, 과학기술, 종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格致總類는 자연과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叢書를 모아놓았다. 『格致啓蒙』은 서양의 화학서와 물리학서, 천문학서, 지리학서를 모아 미국인 林樂知와 鄭昌棧이 共譯한 것이다. 西人議論類는 서양인이 저술한 잡다한 토론에 관한 서적이 소개되어 있다. 『自西徂東』은 중국인들에게 기독교 수용의 정당성과 사회적 폐단의 시정을 주장한 책으로, 기독교 수용을 주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無可歸類에 해당하는 종합성 도서에는 종교에 관한 서적과 소설, 유아교육, 심지어 서양식 요리의 조리법을 소개한 서적도 있었다. 이 세목들을 모두 “雜類之書” 아래에 두었다.

이 目表의 분류 순서를 살펴보면 書目에 대한 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알 수 있다. 분류의 선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서학의 성질은 비어있는 것(虛)을 먼저 하고 실제적인 것(實)을 다음으로 한다. 대개 有形流質의 학문은 모두 無形無質의 학문을 좇아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 자연과학류 중에서 算學과 重學이 제일 처음으로 배치되고, 電學, 化學, 聲學, 光學, 汽學이 그 다음이며, 天學, 地學, 全體學, 動植物學을 그 다음에 두고, 醫學, 圖學은 모두 사람의 일(人事)에 전속한 학문이므로 가장 나중에 배치하였다.

서양 사회과학류 서적은 각국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 수 있게 하는 것, 즉 史志를 맨 앞에 배치하고, 변법유신의 근본이 되는 제도적 부분인 官制를 그 다음에 두었다. 구식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學制는 그 다음에 배치되었다. 官制와 學制 같은 제도는 역사적으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史志類 다음에 배치한 것이다. 法律은 천하를 다스리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 뒤에 두었다. 나라는 필히 먼저 富가 뒷받침되어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農政, 礦政, 工政, 商政 등의 경제 산업을 그 다음에 배치하여 富國強兵을 꾀하였다. 農業이 연구하는 것은 지면상의 생산이고, 鑛業이 고찰하는 것은 지하 속의 생산이며, 工業은 이 둘에서 나온 생산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며, 상업은 상기 세 가지 생산품을 경영,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兵政, 船政은 마지막에 배치하였는데, 조선항해는 해군과 서로 관련 있기 때문에 兵政 뒤에 배치하였다.<sup>12)</sup>

本編의 서학서를 분류한 7개의 기록요소는 각 유형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번역자를 撰譯人에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한 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서학서는 중국 고대의 족자로 된 도서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卷이 아닌 本을 책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였다. 셋째, 과거에는 서적이 소장목적 가지고 있어서 목록 또한 그것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西學書目表』에 도서의 가치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책의 구매가 독서의 전제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서학서 목록에는 敍錄이 없는 대신 지어(識語)가 쓰여 있다. 이것은 독서를 하는 학생들이 참고하여 학습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 편의에 화룡정점의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別裁를 이용하여 중국 전통적인 목록학의 우수한 전통방법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여섯째, 도서명의 앞에 ‘○’를 그려서 그것의 유무와 개수를 표시하여 그 서적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일곱째, 譯者와 刻印處, 識語, 圈識을 덧붙이며 번역한 경위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미루어보아 불교 서적 목록의 장점을 흡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圈識은 표의 상단부 서명의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識語는 표의 하단부 칸에 짧은 문장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2.3 附卷

附卷의 경우 앞의 본편과 달리 분류 형태와 기록사항에서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총 세 가지의 주제아래 각각 개별적인 방식으로 서지 사항을 수록하였다.

첫째 주제는 “通商以前西人譯著”로서 海禁 해제 및 通商 이전에 번역된 서양서적을 소개한 것이다. 명말 청초, Matteo Ricci, Giulio Aleni, Ferdinand Verbiest, Johann Adam Schall von Bell 등 서양에서 중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한자와

12) 梁啓超, 『西學書目表』序例(時務報館, 1896), 張3b. “門類之先後西學之屬先虛而後實蓋有形有質之學皆從無形無質而生也故算學重學爲首電化聲光汽等次之天地人謂全謂全體學物謂動植物學等次之醫學圖學全屬人事故居末焉?西政之屬以通知四國爲第一義故史志居首官制學校政所自出故次之法律所以治天下故次之能富而後能強故農礦工商次之而兵居末焉?農者地面之產礦者地中之產工以作之作此二者也商以行之行此三者也此四端之先後也船政與海軍相關故附其後.”

천문역법 등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서학서를 번역한 바 있다. 그들이 쓴 서적은 『天學彙函』과 같은 총서에 수록되었고, 그 중 서양의 선진 수학을 망라한 서적은 백여 종이다. 이것을 단순히 著者에 따라 분류한 후 書名, 卷數, 叢書名, 備考 등의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둘째 주제는 “近譯未印西人譯著”로 1896년 『西學書目表』를 편찬할 당시에 江南製造局, 益智書會 등의 번역국에서 번역 중이거나 번역은 완료했으나 인쇄를 완성하지 못한 것, 또 번역이 늦어져 완성되지 않은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비록 당장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인쇄된 이후라도 그 서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록을 제공한 것이다. 近譯未印各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두 개의 大類 아래 총 18개의 小類로 나뉘어져 있다. 算學, 化學, 光學, 電學, 天學, 地學, 全體學, 動植物學, 醫學, 圖學 등 자연과학분야와 史志, 法律, 農政, 礦政, 工政, 商政, 兵政, 船政 등 사회과학 분야를 미 인쇄본이라는 하나의 大類 아래 분류한 것이다. 이들 서적은 5개의 기록항목인 書名, 撰譯人, 撰譯處, 本數, 備考(간행여부)로 기록해 놓았다. 아직 간행되지 않은 번역서이기 때문에 本編에서 기록된 서적의 가치와 圈識이 없다.

마지막 주제는 “中國人所著書”로 서양인이 아닌 중국인이 著錄한 서학서이다. 海禁이 해제되어 외국과 통상한 이래로 중국인이 외국문물에 관해 저술한 것 중 비교적 정확하고 읽을 가치가 있는 중국인 저서를 모아 포함시켰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西人譯著라 할 수는 없지만 서양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 중에서 양질의 것을 선별하여 구성한 것으로, 서양인이 번역한 서적보다 자국민이 읽기에 훨씬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地志, 交涉, 游記, 議論, 雜錄으로 분류하여 書名, 編著者, 備考 등 3가지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중국인의 저서 가운데는 游記類가 가장 많고 기타 서적은 그 종류가 중구난방이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곤란하여, 서적 중에서 소위 ‘人間’과 ‘非人間’의 구분, 화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金屬’과 ‘非金屬’의 구분에 의거하여 ‘紀行文類’와 ‘非紀行文類’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이것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앞의 本編과 달리 附卷에 수록된 서목의 경우 학문적 기준으로만 분류한 것이 아니라 서학서의 저자와 간행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주제를 大類로 구성하였고, 각 주제에 따라 다시 小類로 세분하였다. 서적의 기록 유형도 주제별로 달라서 本編의 기록 방식이 정형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4. 結 言

이상으로 양계초가 편찬한 『西學書目表』를 대상으로 그 편성체제 및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梁啓超의 생애와 저술을 조사한 결과, 그는 중국 전통 학문과 서학에 관해 깊이 있는 학식을 갖추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술 활동을 통해 자국의 계몽과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근대적 학술지를 창간하여 그의 정치적 견해를 성토했고, 목록학과 도서관 분야를 포함하여 수많은 저작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목록이 사상을 전파하고 민중을 일으키는 정치적 역할을 구비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目錄書를 간행함으로써 전통 목록학에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둘째, 당시 중국은 서양 문물의 도입을 통해 기술적, 체제적 근대화를 모색하는 단계였고, 양무운동과 변법운동을 통해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또한 姚振宗과 張之洞 등은 고전 서목문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록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과거의 목록체제와는 다른 근대적 목록학의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梁啓超는 그러한 선대의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목록학적 체계를 시도함과 동시에 그것을 유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기존의 우수한 목록 학자와 梁啓超의 이러한 계몽적인 시도로 중국의 도서 분류 체계는 근대적 발전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셋째, 『西學書目表』는 1896년 근대적 학술지 『時務報』에서 발표된 이후 質學會에서 집록한 質學叢書에 다시 수록되었고, 序例를 포함한 本編 上, 中, 下권과

附卷 1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序例에서는 著書의 동기와 목적, 분류기준, 분류방법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本編 3권은 학문 중심적 분류체계로서, 서적의 항목을 學[자연과학], 政[사회과학], 雜[총류] 3분법의 大類와, 28개의 小類로 설정하였다. 분류 순서를 살펴보면 자연과학의 경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을 算學, 重學을 먼저 두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은 醫學, 圖學을 뒤에 두었다. 사회과학의 경우 史志 다음에 官制를 두었고, 富國強兵의 논리에 따라 農政, 商政 등 생산에 관한 것을 그 다음에, 兵政과 船政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넷째, 本編에 수록된 서학서는 書名, 撰譯人, 刻印處, 價置, 本數, 識語, 圈識 등 7개의 기술 사항으로 기록되었다. 附卷의 경우 서적 중심적 분류체계로서, “通商以前西人譯著”, “近譯未印西人譯著”, “中國人所著書”의 3가지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고, 기록항목에 있어서도 앞의 本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通商以前西人譯著”는 譯者別로 분류하여 書名 및 卷數, 叢書名을 기록하였고, “近譯未印西人譯著”는 자연과학 서적과 사회과학 서적을 書名, 撰譯人, 撰譯處, 本數, 備考 등의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中國人所著書”는 地志, 交涉, 游記, 議論, 雜錄으로 분류하여 書名, 編著者, 備考로 기록해 놓았다.

이상의 결과로 梁啓超는 중국의 근대 개혁과 중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목록학이 근대적 체계를 갖추는 것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 대학자였고, 그가 편찬한 『西學書目表』는 기존의 사부분류체제에서 현대적 서구 목록 형식으로 변해 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적 목록서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郭建佑. “從晚清譯書書目的分類體系論晚清士人對西學類目的解讀與應對.” 『圖書資訊學研究』 6卷 2期(2012). 146-150.
- 劉 靜. “略論梁啓超的『西學書目表』.” 『山東圖書館季刊』 1期(1994). 63-67.
- 劉明鑑. “從『西學書目表』看梁啓超早期目錄學思想.” 『圖書館學研究』 1期(1997). 1.

艾克利. “論梁啓超的新學書目.” 『西安外國語學院學報』 7卷 1期(1999). 66-68.

梁啓超. 『西學書目表』. 時務報館, 1896.

鄭錫元.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闡釋.” 『中國語文學論集』 제21호(2002). 677-695.

趙 輝. “梁啓超與中國近代目錄學.” 『唐都學刊』 5期(2004). 122-125.

質學會. 『質學叢書總目』. 質學會, 1897.

胡海迪. “『西學書目表』與『日本書目志』的比較.” 『沈陽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6卷 1號(2012). 76.

黃 濤. “論梁啓超『西學書目表』的文化價值.”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9卷 3期(2010). 61-66.